

## 國家論의 概要(前號續)

鮮于

君主世襲과 君主 撰舉制의 區別은 政體의 區別은 될지라도 國體에는 何等의 關係가 無함과 如함도다. 既述함과 如히 現今獨逸帝國은 皇帝世襲制라 呼지라도 實權은 世襲함은 大統領에 不過함고 獨逸皇帝는 普國王이라 呼면 確實함 主權者라 呼을 可得함지라도 獨逸皇帝라 呼면 決코 主權者라 謂치 못함지며 又昔에 羅馬皇帝는 在位中主權者됨으로 因함야 彼の 意志는 卽 法律이라 呼였시나 其 卽 位는 元老院 及 軍隊의 撰舉承諾으로 因함얏더라. 此로 由함야 觀함면 世襲制로써 君主國體의 特色이라 稱함기는 不可함나 撰舉君主制는 君主國體의 特徵되지 아니함은 明瞭함니 何者오, 君主를 撰舉함 것은 又君主를 廢止함도 得함지라 夫古代의 羅馬帝國과 如함 國도 皇帝撰舉制됨은 無疑함니 其 以前에 共和國體의 遺風으로 因함이로다. 故로 世襲君主制는 반다시 君主國體의 特色되기 不能함나 君主國體는 반다시 世襲君主國되지 아니키 不能함도다.

如何함 國體又는 政體이든지 器械又는 家屋과 如히 容易히 製造함며 建設치 못함지라 多數는 有機體와 如히 自然히 生長發達함으로 要件을 作함나니 卽 如何함 國體又는 政體이든지 반다시 其 人民風俗習慣으로부터 自然히 出來함는 者아니라 함이 不可함 中特히 君主國에도 然함니라. 共和國體는 或一致團結함 少數者又는 優勢함 多數者의 強力으로 因함야 一時에 設立함고 又 永久히 支保함기 可得함나 然이나 君主國體는 主權者一人이 存在함 國體로 君主는 唯一人인 즉 一人의 力으로써 天下를 制키는 不能함 故로 國家의 主權이 一人의 君主에 歸屬함은 決코 一朝一夕에 成함을 不得함 者오 반다시 有力함 少數者의 一致團結又는 優勢함 多數者의 強力으로도 更함기 難함 즉 自然히 其 後를 不可不助함지라. 然이나 如此히 偉大함 勢力은 古代에는 宗教又習慣에 過함는 者無함여시니 卽 古代에 宗教와 習慣이라 함은 同一히 人間의 思想이 及함는 其 行爲를 管轄함으로 因함야 진실노 今日의 宗教又 法律에는 比치 못마로다. 希臘詩人 「비다루」가 習慣은 萬人의 王이라 云함고 又古代에는 習慣은 神의 命令이라 信賴함과 如함으로써 其 效力이 如何히

大히얏든 것은 足知할지로다. 然이나 君主國體는 近世에 成立호였다. 云호기 不可호니 普國의 王室은 第十五世紀 初葉에 皇帝가 「푸덴덴푸루크」에게 侯爵을 封호고 又第 十八世紀 初葉에는 皇帝가 普國王이라 호는 稱號를 賜호도 普國王이 自己의 實力으로써 能히 其 地位를 保호고 又一般人民의 歷史的 服從을 得호는 것을 古代에는 神權王國의 發生과 無異호다 호여신 즉 普國王은 固有호는 主權者되는 資格을 有호에 至호였시니 蓋其權力은 過去或은 現在의 人民에게 得호는 者아니오, 又昔時에는 皇帝로부터 權力을 與호였슬지라도 一次許與호는 以後는 皇帝의 權은 衰微消滅호고 今에는 獨立의 主權者가 되나니라. 此로 因호야 君主國體는 特히 自然히 生長호는 者오 遽然히 製造호는 者는 아니니 譬컨디 高妙호는 美術品은 或時代에는 發生호되 他時代에는 容易히 生産호를 不得호고 如호도다. 然則泰西의 人民이 君主國體로써 特히 壓制호고 專制호는 無責任으로 思考호는 一大謬見이라 不可不謂호는 지로다. 蓋國家의 本質은 主權에 存在호는 故로 法律上國家라 호는 以上은 總히 壓制의 手段이 有호는 既述호고 如호나 獨히 君主國體는 不然호다 호노니 何者오, 彼君主國體에는 權力이 少數者에게 屬호는 故로 優勝호는 勢力이 無호는 지라 要컨디 君主國體는 其 自身이 반다시 他國體보다 專制又壓制된다 謂호는 卽 이니라.